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수 10am
	ACA	김행자	목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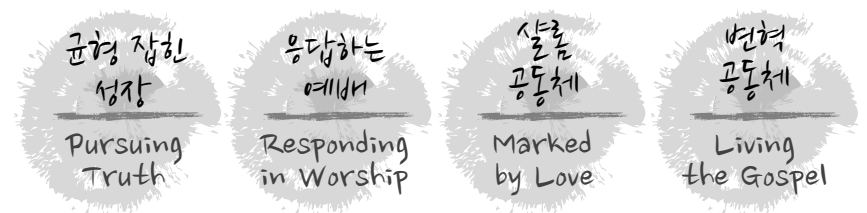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7/30	8/6	8/13	8/20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레바논 선교보고회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박미현,곽은영 /심미진,김남순	레바논 선교보고회	신윤선,이주영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최설아 /김새롬,전혜경
주차 봉사	김동현/지종성	변상운/Tom Flynn	이종천/김민수	Rick Geib/대호
예배 안내	라운 (7월) & 바마코 (8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기쁨 - 성령의 열매 Joy

본문: 빌립보서 4:4-9
설교: 딘 크리스텐센 목사

빌립보서 4장 4-9절

-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 (5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8절)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 (9절)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또는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기뻐합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선전하여 4강에 올랐을 때, 전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도 역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경우를 두고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으며,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기쁨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인해 오는 관용을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4.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기쁨 안에서 우러납니다.
5.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6. 기뻐하는 마음과 기뻐하며 사는 생활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1. 기뻐했던 경우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2. 심리학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하면 기쁨은 주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상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3. 우리가 본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은 말하기를 기쁨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흠에서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의 흠은 어떤 흠입니까?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변혁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수단 (Sudan) 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70%), 정령신앙(25%), 기독교(3%)
- 인구: 약 42,166,000명, 기독교인: 1,996,000명
-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박해순위 5위
-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수단(Sudan)은 박해점수 87점으로 2017년 세계박해 순위(World Watch List, WWL) 5위를 기록했다. WWL2016의 기록은 84점에 8위였다. 박해 점수가 상승한 이유는 알바시르(al-Bashir) 수단 대통령이 재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대로 샤리아법(sharia, 이슬람 율법)의 온전한 집행이 여러 모습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단의 이슬람 정부는 여전히 누바(Nuba) 산지 기독교인 박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WWL2017 집계 기간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목사가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은 사실이 수차례 보고되었다. 이는 수단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단의 기독교 박해는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과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로부터 비롯된다.



수단의 박해상황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이슬람교가 오랜 역사를 거쳐 수단 사회에 견고히 뿌리 내린 만큼, 이슬람교가 과격화 될 경향 역시 언제나 존재해 왔고, 그 대표적인 예로 19세기에 발생했던 마흐디스 트 운동(Mahdist movement)이 그것이었다. 수단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가기 전 그를 수용했던 국가이기도 하다. 수단 인구의 대다수는 수니파 무슬림(Sunni Muslim) 이다. 수단 법체계는 샤리아법(Sharia)의 기반 위에 세워졌으며, 수단 엘리트들은 새로운 이슬람 왕국을 건립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배교는 불법에 해당하여 최고 사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또한 일련의 신성모독 관련 법률로 인한 기독교인 박해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독재 정권(Dictatorial paranoia): 알바시르(al-Bashir) 대통령은 1989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수단에서 독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공공 및 사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르푸르(Darfur) 사태(2003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수단의 다르푸르지역에서 발생한 인종과 종족간에 종교 문제 및 경제 문제가 얽혀 발생한 분쟁)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수단인민해방운동북방군(Sudan's People Liberation Movement North, SPLM-N)과의 분쟁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단의 집권자 대부분이 과격주의 사상을 지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집권 국민의회당(National Congress Party, NCP)은 사실상 이슬람교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단 정부가 기독교 박해에 앞장서는 이유는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독재적 측면 외에도, 이슬람교 과격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해배경

이집트, 리비아,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그리고 홍해에 둘러싸인 수단은 지난 수십 년간 잦은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진행중인 남수단 내전은 국제 언론의 관심을 알바시르 정부가 자행한 범죄에서 분산시키고 있다. 수단의 민족문화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크게 아랍인, 소수민족 아프리카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남수단의 독립도 이런 민족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고 여전히 수단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갈등이 두드러진다. 수단 정부는 단일 종교, 단일 문화, 단일 언어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남수단 내전과 수단인 민해방운동북방군과의 분쟁이 수단과 남수단의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누바 산지의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되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한 인종 청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단은 모든 수를 써서 남수단의 독립을 막으려 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근거하여, 수단 정부가 16년 연속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사실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수단을 특별 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재지정했다. 결과적으로 "이슬람교의 탄압"과 "독재 정권" 사이의 치명적인 관련성으로 인해 기독교인은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개인영역:** 수단 형법에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무슬림배경신자(MBBs)들에게 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현지 기독교 사역자들은 무슬림배경신자들에게 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소지하거나 기독교 TV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무슬림으로 구성된 가족과 사회, 정부 관리들로부터 박해의 이유로 활용되기도 하며, 발각될 경우 위험이 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이슬람에 대한 배교를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영역:** 기독교인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 학교나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양육권이나 유산 상속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개종자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는 영역이 바로 가족들로부터이다. 문제는 장례식으로써까지 확대되어 기독교와 무슬림을 위한 묘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가족들에 의해 고인이 된 무슬림배경신자들은 종종 이슬람 예식에 따라 무슬림 묘지에 매장되기도 한다. 무슬림배경신자들은 또한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아이들이 무심코 부모의 신앙을 말함으로써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영역:**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에 있어, 수단 정부는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따르고 있다. 이 법안은 수도 하르툼(Khartoum)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복장'과 '명예, 명성, 공중도덕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 경찰은 허용된 복장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거나 체포한다. 또한 관공서나 지역사회 자원을 지원받는 것에서도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특히 무슬림배경신자들은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감시의 대상이 된다. 기독교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다.

***국가 영역:** 기독교인들은 이류 시민으로 간주된다. 수단의 임시헌법 제38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수단을 무슬림국가로 여기고 있다. 대부분의 법과 정책은 이슬람 법인 샤리아법(Sharia)에서 유래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법안들 역시 방해되는 조항을 덧붙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남수단의 기독교인들과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정부의 치안 유지군에 의해 빈번히 감찰당하고 있다.

***교회영역:** 삶의 영역 중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는 곳은 교회로써, 수단의 교회생활은 매우 엄격히 통제 받고 있다. 현지 사역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종교기관에 대한 수단 정부의 개입이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종교부처의 개입으로 목회자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자신들이 감시의 대상임을 느끼고 있다. 수단 치안 유지군은 기독교 학교를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강요하고 있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만에 하나 교회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 해도, 해당 지역의 이슬람 지도자들과 극단적 무슬림들로부터 매일같이 공격 받게 된다.

***폭력:**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슬람 탄압과 독재정치가 함께 작용해 나타난 결과이다. 2017년 기독교박해지수가 보고된 기간 동안 살해된 기독교인인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적어도 다섯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바(Nuba)족이 살고 있는 산악지역은 정부의 치안유지군에 의해 무차별적인 감시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반군을 겨냥한 것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교회와 기독교 소유물들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목회자들은 수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박해를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현장 사역자에 따르면, 보고 기간 동안 신앙 때문에 체포된 기독교인이 12명을 넘는다고 알려졌다. 목회자인 하산 압둘라힘 코디 타우르(Hassan Abduraheem Kodi Taour)와 쿠와 샤말(Kuwa Shamal) 목사 외에 체코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현재 재판 중이다. 그들은 모두 간첩 활동과 반국가 전쟁 선동, 그리고 종교인에 대한 증오심 유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7/24-28)

지난 주간에 빌리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다음주 한인 헬로우업 (8/6)

다음 주일 (8/6)에는 레바논 단기선교 보고회가 있으며, 한인 헬로우업이 따로 모임지는 않습니다.

3. 다음주 한인부 수요예배 (8/9)

다음주 빌리지 한인부 수요예배 (8/9)는 에덴장로교회와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 일시: 8월 9일 (수) 7:30pm
- 장소: 에덴장로교회 (1200 SW 185th Ave. Beaverton. OR 97006)
- 강사: 이중덕 선교사 (유럽내 시리아 난민 사역자, IMB)

4. Missional Awakening (8/13)

Missional Awakening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 삶의 자리에서 민감하고 신실히 반응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상기하는 기회입니다. 금번에는 오랜 기간동안 시리아와 요르단에 사역하시다가, 최근 독일로 이동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계시는 이중덕 & 이현정 선교사님 (시리아 목장 동역 선교사)을 모시고, 유럽내 난민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귀한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간단한 점심이 준비됩니다.

- 일시: 8월 13일 (주일) 2 - 4pm
- 장소: Willamette A & B
- 문의: 시리아 목장 (이청호 목사)

5. 날마다 솟는 샘물 (8월호)

8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업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우리 공동체내에 양육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인내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아이돌봄 도우미 모집

빌리지 너서리에서 일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Sarah Meeds께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arahm@vbconline.org)

3. 지역사회와 더불어: 반즈 초등학교 환경미화 (Community Care Day)

올해는 반즈 초등학교와 미도우 파크 중학교, 두 곳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고, 실내와 실외 청소용품을 준비하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8월 19일 (토) 9am - 12pm
- 장소: Barnes Elementary School & Meadow Park Middle School
- 참가 신청: <https://vbconline.wufoo.com/forms/community-care-day-rsvp/>

4. 아이와 함께 하는 하이킹 (8/15(화), 9:30am @ Orchard Park)

유모차로 다닐 수 있는 산책로로 아름다운 연못과 오리를 볼수 있으며 화장실과 놀이터가 있습니다.

- 주소: Orchard Park: 20900 NW Amberwood Dr, Hillsboro, OR 97124

5. 여성부 기도회 (매주 목요일, 10-11:15am @ Deschutes Room)

여성부는 매주 목요일 교회와 개인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첫번째 목요일은 빌리지의 다문화 공동체의 사역과 필요에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문의 : Denise Phillips, deebillph@gmail.com)

6. 패밀리 캠프 기간 중 교회 사무실 시간 변경

8월 7일(월)부터 8월 14일(월)에는 교회 사무실이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만 엽니다.